

아동 재학대 예방을 위한 월드비전 아동의 목소리 아동 재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핵심제안]

아동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

1. 가해 부모의 학대 근본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 보호시설과 위탁가정의 수를 확충해야 합니다.

1. 현황

아동 재학대 발생 수치 증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과제'를 살펴보면, 2019년 아동학대 1,685건 중 원 가정 보호 건수는 1,498건(89%)입니다. 초기에 가정과 아동을 분리해 보호한 건수는 187건(11%)에 그쳤으며 이 중 절반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¹⁾ 하지만 가해 부모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원 가정 보호 조치'는 결국 높은 비율의 아동 재학대로 이어집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재학대 사례 건수는 2,160건, 재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수는 1,859명을 기록했고,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은 9.7%였습니다. 2019년에는 각각 3,431건에 2,776명으로, 11.4% 늘어났습니다.²⁾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부족

2020년 기준 국내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총 72개로 쉼터 한 곳당 정원은 5~7명 수준입니다. 전국의 쉼터를 모두 더해도 보호할 수 있는 아동의 수는 500명이 채 되지 않으며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범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현실입니다. 또한 보호시설 외 학대 피해 아동이 원 가정과 분리되었을 때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로 전문위탁가정이 있지만 이 역시 25가구(21년 3월 기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원 가족 분리 이후 피해아동 보호 대책 미비

2020년 '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아동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1년 3월 30일부터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떨어뜨리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분리 이후 피해 아동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가해 부모에게 어떻게 접근하여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후유증 극복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서 다양한

1) <https://m.segye.com/view/20200916521323>, 세계일보, 2020-09-17, 배소영 기자

2)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31/NRNPTJYPRJDDRJGYQC5FEHB3CI/, 조선일보, 2021.01.31. 05:30, 이성진 기자

교육·의료·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대다수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아동의 가족들은 '일반 상담'³⁾을 받는 것에 그쳤습니다.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가족 기능 강화, 학습 및 보호 지원 등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은 전체의 약 10%에 머물렀습니다.

부모 및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제성 미약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 중 폭력성이 가해자의 특성인 경우는 4.8%로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35.6%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 대부분이 학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어 대다수 학대 행위자는 관련 교육 및 서비스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제안

아동 재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아동 재학대 발생을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학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가족을 보호하고 일상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학대 행위자, 즉 가해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심리치료 등의 이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가족을 보호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강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아동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원 가정 학대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학대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 원인에 따라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학대 행위자, 즉 가해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심리치료 등의 이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가해 부모의 학대 근본 원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전문 보호시설과 위탁가정의 수를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전체 아동의 65%(35만9033명), 행위자의 70%(18만2079명), 부모·가족의 76.5%(11만583명)가 '일반 상담'을 받는 것에 그침.